

# 르완다

## 가보기 좋은 장소

**농웨 국립공원:** 농웨의 숲은 아프리카 동부 · 중부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고, 그 기원은 빙하기까지 되돌아갑니다. 공원 내에는 침팬지를 비롯하여 로에스트구에는 등 13 종류의 영장류를 볼 수 있습니다. 고비나 양치류 등이 우거지는 태고부터 계속되는 숲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으며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캐노피 워크도 추천. 멸종 위기 종인 Madagascar SquaccoHeron, Grauer's Swamp Warbler, Red-collared babbler 등을 비롯해 28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류 관찰에 최적입니다.

**키갈리:** 르완다의 수도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기로 한 손에 꼽는 지역이다. 산을 깎아 만든 도시에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갈리는 도시가 깨끗하기로 매우 유명한 나라며, 다시 말하지만 치안이 정말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키갈리의 대중교통은 그리 좋지 못하다. 버스는 현금만 받으며 구글 지도에도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현지인이 아니면 타기 어려운데, 설상가상 도시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다. 자연스럽게 여행자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르완다 대학살 추모관:**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키갈리의 '르완다 대학살 추모관 Rwanda Genocide Memorial'을 찾아보자. 불과 20년전에 있었던 르완다의 '인종 청소' 대학살극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관으로, 비극과 회복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이다.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법이다.

**루헝게리:** 르완다 북서부 우간다의 국경에서 25km거리에 위치하는, 7 만명이 사는 작은 도시 루헝게리. 루홍도 호수, 브레라 호수, 화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원래는 벨기에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아카제라 국립공원:** 발음에 따라 아카제라라고도 한다. 르완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구역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유니크한 사파리를 가지고 있다. 르완다의 대표 사파리, 아카제라 국립공원은 늪지대의 호수와 아카시아 관목으로 특징할 수 있는 르완다 유일의 사바나 국립공원이다. 빅5로 대표되는 거대한 동물들과 국립공원만의 고유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공원 안의 이헤마 호수에서는 하마와 악어떼가 일광욕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종의 다양성이 아주 높다. 예약자에 한해 호수에서 스포츠 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낚은 물고기는 다시 호수로 놓아주어야 하지만 일부 종에 한해서는 한 마리씩 가져가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한다.

**볼케이노 국립공원:** 볼케이노 국립 공원은 르완다 북서부에 있는 아프리카 최초의 국립 공원입니다. 열대우림이며, 밀렵꾼으로부터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1925년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공원은 보호 구역으로, 비룡가 산맥에 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마운틴 고릴라(Gorilla beringei)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체수는 1760~7040마리로 추정됩니다. 또한 멸종위기 종인 황금 원숭이도 볼 수 있으며 코끼리도 매우 드물지만 공원에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멸종 위기 고릴라와 원숭이 등을 보기 위해 볼케이노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파리 체험, 트레킹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키부 호수:**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 멋진 호수입니다. 키부 호수는 '기세니', '키부예', '시앙 구구'라는 휴양지와 마주하고 있어 르완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보트를 탈수도 있어 도심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유유자적한 여행을 즐기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호숫가에는 다양한 숙소도 많아 멋진 경관을 보면서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 키부 호수와 유사한 명소로는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Lake Victoria)\*\*를 추천드립니다. 두 호수 모두 커다란 담수호로, 풍부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키부 호수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제공한다면, 빅토리아 호수는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두 호수 모두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모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 해보기 좋은 체험

**고릴라 트레킹:** 연중 17℃ ~ 25℃ 정도라서 지내기 좋은 날씨이고, 철저한 관리 덕분에 도시 안이 깨끗한 르완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행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르완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이라고 하면 고릴라! 산 안을 숙지한 가이드가 함께하니 안심 안전. GPS를 가진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90%의 확률로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버백"이라고 불리는 무리의 보스 고릴라의 박력은 압도적입니다! 운이 좋으면 아기 고릴라를 만날 수 있을지도!? 고릴라 트레킹은 입장에 특별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고릴라 보호를 위해 하루 8명 한정으로 전문 가이드가 동행합니다. 산을 숙지한 가이드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어를 만들어냅니다. 트레킹은 가장 짧은 것이 2시간, 평균 4시간, 긴 것으로는 7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자기들 범위 안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달라집니다.

**전통 커피 체험:** 밭에서 로스터리로 이동하여 전통 및 현대식 로스팅 방법에 모두 참여해보세요. 현지 전문가가 각 공정의 복잡한 과정을 공개하며 르완다 커피 장인 정신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실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매력적인 키갈리 커피숍에서 특별한 시음 세션을 즐기며 마무리됩니다. 르완다의 커피 풍경에 대한 독특한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블렌드를 시음해 보세요. 현지 전문가 및 커피 애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커피 한 잔을 넘어선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집니다.

**무산제와 기센이 탐험:** 아침 식사 후 아침 7시에 키 갈리에서 기세 니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세 니로가는 길에 우리는 관광의 도시로 알려진 무산 제 지구를 통과할 것입니다. 가는 길에 니랑가라마 기업에서 간식을 쇼핑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쇼핑을 마친 후 무산제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무산 제에 도착하면 키니 기에서 운전하여 전통 문화 마을을 방문합니다. 춤을 추고 왕 입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문화 활동과 전통 무용을 할 것이며 이것은 또한 왕의 입회 과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문화 마을의 역사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음 일정들을 포함합니다: 르완다의 왕국, 대장장이에게 데려다주기, 사냥 기술(표적 사격)로 안내합니다, 이론적 우유 보존, 식품 저장 및 연삭 돌 (고객이 원하는 경우 연삭을 시도 할 수 있음), 이론 바나나 베어 프로세스, 전통 치료사(약초학자), 왕의 궁전 복제품 방문

거기에서 우리는 기센이로가는 길에 무산 제 도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센이에 도착하면 다음을 위해 잘 준비 할 것입니다. 활동: 보트 크루즈, 머드 메시지, 천연 끓는 물 / 온천. 나중에 기센이에서 계획된 모든 활동에 참여한 후 기세니에서 계획된 모든 액티비티에 참여한 후 기세니를 떠나 키갈리로 돌아갑니다.

**키부호수 크루즈, 보트 투어:** 이곳에서의 가장 큰 즐길 거리는 바로 크루즈와 보트 투어입니다. 크루즈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탐험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수 위의 작은 섬들을 방문하며 그곳의 독특한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 섬(Napoleon Island)\*\*은 새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방문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카약킹, 패들보팅:** 키부는 카약킹과 패들 보팅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카약을 타고 누비며,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을 만끽해보세요. 호숫가 주변에는 카약과 패들 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많아, 누구나 쉽게 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가보기 좋은 음식점

Pili Pili: 낮에는 식당으로, 저녁에는 CLUB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궁금해서 저녁에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무슨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나 봐요!! 큰 스크린으로 모두가 다 같이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입장료도 받습니다!! 테이블 개수도 많아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곳이고, 개방된 곳이다 보니 통풍도 잘됩니다.

2층까지 있어서 높은 천장으로 답답하다는 느낌도 전혀 안 듭니다 ㅎㅎ 작은 수영장과 작은 놀이터, 작은 풋살장도 있더라고요!! 2층은 좀 더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테이블의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커튼을 치고 식사를 하면 만석이어도 부담은 덜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평일에 오면 피자 한 판에 5,000원이라고 해요!! 포장은 안되고 조건은 무조건 식당에서 먹는 걸로!!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 아무튼 평일에 피자가 당기시는 분은 가셔서 싼값으로 맛있는 피자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lini: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 있는 convention center 안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 매우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 60,000RWF의 뷔페식. 공연을 들으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음. 가격이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맛있음.

Habesha Ethiopian Restaurant: 하베샤 에티오피안 레스토랑. 에티오피아에서 2년 살았던 마스터가 인정한 맛집. 커다란 쟁반에 갖은 야채와 고기들이 동그랗게 올려져 있고, 밀가루 반죽 같은 발효빵에 싸서 먹는 방식.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으로, 문화체험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맛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먹는 재미가 있다.

## 추가로 알면 좋은점

-탄자니아와 콩고 사이의 산악지대에 있는 르완다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적도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로 쾌적하다. 대체로 한국의 봄/가을 날씨 정도가 일 년 내내 유지된다는 평. 우기가 일 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는데, 3월부터 5월까지의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비가 자주 오지만 양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따라서 르완다를 여행하기에는 건기인 6월부터 9월까지가 평균적으로 좋다. 그러나 산이라는 곳의 특성상 울창해지려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하는데, 침팬지나 고릴라같은 동물을 만나고 싶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느정도 젖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시기에는 하늘의 구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산에 질게 깔리는 안개 덕분에 사진이 그렇게 예쁘게 찍힌다는 이야기도 있다.

-르완다는 관광에 한해 입국장에서 30일의 도착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다.

-키갈리의 대표 운송수단은 '보다보다'라고 불리는 오토바이 택시다. 오토바이 기사 뒤에 타는 로맨틱한 운송수단으로, 간단하게 이동할 때에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륜차를 렌트한다면 직접 사파리를 운전하며 투어를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노하우

없이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하루종일 차를 몰고 동물을 찾아다녔지만 별로 못 만나보았다는 후기가 많으니,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쯤 가이드와 함께 가는 것을 추천한다. 가이드와 동행하는 나이트 사파리도 준비되어 있다.

- 날씨: 키부는 열대 기후에 속하며, 연중 온화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여름철(12월3월)에는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철(6월8월)에는 다소 건조하고 시원한 날씨를 보입니다. 평균 기온은 20~28℃ 사이로, 여행하기에 매우 쾌적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언어와 화폐: 르완다의 공용어는 키냐르완다어(Kinyarwanda), 영어, 프랑스어이며, 화폐는 \*\*르완다 프랑(RWF)\*\*을 사용합니다.

- 꼭 챙겨야 할 것들: 키부 호수는 주로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또한, 호수에서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수영복과 비치 타월도 준비하세요. 물이 차가울 수 있으니 얇은 재킷이나 수건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